

순천시, 2021한국여자바둑리그 ‘순천만국가정원팀’ 창단

신생팀의 열정과 패기 가득...바둑으로 순천시 홍보대사 자임

허석 시장 “창단 첫해 성적보다, 시민 즐거움에 큰 의미 부여”

순천시는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는 '2021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출전할 '순천만국가정원팀'을 창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진 순천시의회장, 시 관계자, 양건 감독, 오유진, 박태희, 장혜령, 김상진 선수가 참석해 창단식을 가졌다.

시는 프로바둑기사를 다수 배출해 온 국내 유일 바둑전문 한국바둑 중·고등학교가 있는 순천시이기 때문에 '순천만국가정원팀' 창단은 값진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순천만국가정원팀은 KB리그 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양건 9단이 감독을 맡았다.

이어 여자 순위 2위인 오유진 선수를 영입하고 박태희, 장혜령, 김상진 선수가 합류해 신생팀으로써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양건 감독은 한국바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바가 있으며, 오유진 선수 또한 바둑고 출신으로 순천시와 인연이 깊다.

양건 감독은 “신생팀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줄 것이며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순천을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바둑리그는 2015년 출범했다. 지역 연고팀을 구성해 여자프로 기사들이 실력을 겨루게 된다.

리그는 5월 17일 개막식, 2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대장정이 펼쳐진다.

8개 팀 14라운드 더블리그 방식의 정규리그가 펼쳐지고 이후 상위 4개 팀이 진출해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의 포스트시즌이 진행돼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창단 첫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는 경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14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바둑 여자리그 출전을 위한 순천만정원팀이 창단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광주 정광고,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 금4·은2·동3 획득

2005년 창단 이후 각종 대회 꾸준히 우수한 성적 거둬



(왼쪽부터) 나민주·황수민·서정빈

광주 정광고가 지난 7~10일 전남 강진군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0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정광고 3학년 나민주 학생은 지난 7일 열린 남자 고등부 67kg급 경기에서 인상 115kg, 용상 150kg, 합계 265kg으로 인상 2위, 용상 1위, 합계 1위를 거머쥐었다.

정광고 3학년 황수민 학생은 남자 고등부 89kg급에서 인상 135kg, 용상 160kg, 합계 295kg으로 인상 1위, 용상 2위, 합계 1위를 거머쥐며 금메달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정광고 3학년 서정빈 학생은 남자 고등부 109kg급에서 인상 125kg, 용상 160kg, 합계 285kg을 들어 올려 동메달 3개를 차지했다.

정광고 역도부는 지난 2005년 창단 이래 각종 역도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둬다. 2020년도 전국춘계역도대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역도대회 등에서 1~3학년 남녀 학생들이 출전해 꾸준히 금·은·동을 목에 거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정광고 역도부 감독 박경열 교사는 “코로나19로 훈련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순원진 코치의 지도에 잘 따라주며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쳐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린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고 함평권 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해 이번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정광고 역도부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광주체육중 태권도부, 협회장기단체대항태권도 금1·은1

남중부 나정후·여중부 박시현 선수 입상

광주체육중 태권도부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15~18일 개최되는 제51회 협회장기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지난 15일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16일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올해 처음 주관하는 첫 대회로, 선수들의 기량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남중부 미들급 1위 나정후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서 특유의 빠른 스텝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비전중학교 선수를 18:13으로 누르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경기에서 복현중학교 선수를 상대로 1회전 4: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하면서 18:7의 스코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 패더급 2위 박시현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서 대전체육중학교 선수를 상대로 10:3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경기에서는 신관중학교 선수에게 2회전까지 3:3으로 팽팽하게 접전을 펼쳤지만 3회전 일곱득점을 빼앗기면서 급격히 기운이 시작하며 10:3으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패더급 2위 박시현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서 대전체육중학교 선수를 상대로 10:3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경기에서는 신관중학교 선수에게 2회전까지 3:3으로 팽팽하게 접전을 펼쳤지만 3회전 일곱득점을 빼앗기면서 급격히 기운이 시작하며 10:3으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 태권도부는 대회 첫날 금1, 은1개를 획득하면서 태권도 명가의 자존심을 지켜나갔다.

박시현 선수와 나정후 선수는 2019년 당시 1학년 시절 48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유망주였고, 이번 대회 입상을 발판 삼아 우수선수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체육중 태권도부 정인하 감독은 “코로나19로 훈련량도 부족하고, 타 학교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열심히 훈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마음 편하게 훈련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팀명 발표 앞둔 광주 페퍼배구단...반쪽연고 이미지 우려

인공지능 도시 부각 위해 'AI' '광주' 팀명에 사용될 듯



이용섭 광주시장과 페퍼저축은행 장매주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자프로배구 신생구단 광주 연고협약식을 하고 있다.

광주 연고를 확정지는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페퍼배구단)이 공식 팀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기만 광주에서 치를 뿐 속소와 훈련 등은 수도권에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져 '반쪽짜리 연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체육계는 연고지 확정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세부적인 사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 광주 정착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페퍼배구단의 연고지 광주로 확정된 이후 공식 팀명을 빠른 시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팀명에는 '광주'와 인공지능 도시를 상징하는 'AI'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퍼배구단의 광주 연고 확정으

로 프로농구 팀이 지난 2006년 지역을 떠난 이후 15년만에 겨울 스포츠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지역 체육인들은 광주를 연고로 활약하고 있는 야구(KIA 타이거즈)와 축구(광주FC) 처럼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페퍼배구단은 훈련장과 속소는 수도권 지역에 마련되며 광주에서는 경기만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홈경기 중 70%만 광주에서 치르고 나머지 30%는 수도권에 배정해야 하는 조건이다.

여자프로배구 6개팀이 팀당 30개 임을 치렀던 지난 시즌과 대비하면 홈에 배정된 15경기 중 5경기는 광주 연고의 이름으로 수도권에서 치러야 한다.

7개팀의 남자부 36경기과 비교하면 홈 18경기 중 6경기가 홈경기 같은 원정이다. 광주 배구 팬들이 홈경기를 보기 위해 수도권까지 찾아가거나 방송 중계를 통해 시청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기가 높은 여

자프로배구단을 지역으로 유치해 배구 팬들이 겨울에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됐다”며 “무엇보다 지역의 유망주들이 고향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동채본부

벤투호, 도쿄올림픽 앞둔 김학범호에 양보하나



파울루 벤투(왼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52)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학범(61) 올림픽대표팀 감독

발표할 것이다. 각각 31일부터 소집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벤투호는 6월 국내에서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준비한다. 김학범호는 7월 도쿄올림픽 본선을 앞두고 평가전을 겸한 최종 소집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벤투호는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김학범호는 평가전 일정에 따라 지방에서 모일 계획이다.

양두고 올림픽대표팀의 핵심 자원 이준중, 원두재(이상 울산), 엄원상(광주), 조영욱(서울), 윤종규(서울) 등을 발탁했다.

같은 기간 경주에서 전지훈련을 가진 김학범호는 벤투호가 앞둔 한 일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이해하고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다. 올림픽을 앞두고 갖는 마지막 국내 소집 훈련으로 조직력 다지기와 실전 점검을 위해 평가전을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평가전 일정과 상대는 조만

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지난달 28일 “이전에는 A대표팀에 양보했지만 이제는 올림픽 본선이 코앞인 만큼 정중히 도움을 구하고 싶다. 월드컵 2차 예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계 대회를 앞두고 있다”며 “A대표팀에 거듭 양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벤투호는 복한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다음달 튀르키예스탄, 스리랑카, 레바논과 3경기를 치른다.

뉴스

각각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올림픽 전 마지막 훈련과 평가전 앞뒤...일정 겹쳐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 “월드컵 2차 예선 중요하지만 우리도 세계 대회 앞뒤”

독이 오는 24일 각각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2020 도쿄올림픽 전 최종 훈련에 합류할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한다.

중복 차출되는 선수가 없도록 사전 조율을 예고한 가운데 벤투 감독이 올림픽 이전 마지막 소집훈련을 앞둔 김학범호에 ‘통 큰 양보’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벤투 감독과 김학범 감독이 24일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국가대표 명단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평가전을 버블 형태로 치르려면 파주에서 성인대표팀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벤투 감독이 김학범 감독에게 중복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협회 관계자는 “두 감독님이 직접 만날지, 코치진이 협의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수 차출을 놓고 조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벤투 감독은 지난 3월 A매치를